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적체 해소 한목소리

국정감사 6일째

대기자 2019년 6만1천명
여야 "복무 기관 늘려야"
병무청 "수급 고려해 조정"

국회 국방위원회의 17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적체 현상이 화두가 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처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폭증한 것을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보충역 대기자는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는 5만명, 내년에는 5만8000명으로 늘고 2019년에는 6만1000명이나 된다. 보충역 대기자가 늘면서 장기간 소집대기 현상이 발생, 보충역 소집 대상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같은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을 보낼 곳이 적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나 다른 행정기관과 상의해서 복무 기관을 늘리면 된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바꿀 때 의견을 물었으나, 병무청은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했다"며 "소집 적체 돌려막기가 충분히 예상됐는데 왜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는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은 집안의 큰 일"이라면서 "병무청이나 군의 관점이 아니라 입영 되는 당사자나 가족의 관점에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 똑바로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회의운영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이대로 놔두면 대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코미디가 발생한다"며 "병무청은 국방부 장관과 상의해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각 부처와 함께 적체 해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현역병 소집 적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개정했는데,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가 심해졌다"며 "신축적인 제도 운용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복무 관리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을 적게 하는 것"이라며 "병무청이 인건비 관리와 인원 배정을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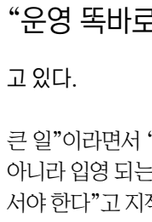
한편,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 앞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병역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 중 징병검사 때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현재 이들은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또 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 1인당 매월 50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데 이는 복무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 복무기관은 인건비 부담으로 사회복무요원 수용을 기피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역병이 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는 2015년 3493명, 2016년 3136명, 지난 7월 현재 1705명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낙연 "적폐청산, 당당히 임하라"

국무회의 주재…장관들에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 장관들은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은 특정 세력이나 특정 개인을 겨냥한 기획사정도, 보복사정도 아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적폐청산은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께 불편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렇게 잘못된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국회 이곳저곳에 공무원들이 빽빽이, 심지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대기하는 것은 볼썽사납고 비효율적이다. 심하게 말하면 부처의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각 부처 실·국장의 지혜로 공무원 동원을 대폭 줄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반사회적 범죄대응'에 관해 관계부처의 실효성 높은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국민 우려가 크다.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데서 충격은 더 크다"며 "우리 사회의 무엇이 이런 비극을 잉태하는지,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與 연정 제안, 흡수통합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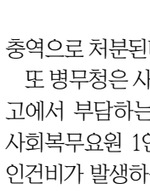
"바른정당 잔류파와도 통합 불가…박근혜, 정치 투쟁 선언"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바른정당 분열시 자강파(잔류파)와 국민의당의 통합은 불가능하며, 민주당의 연정 제안은 국민의당을 흡수통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11월 정기국회 기간에는 두 당이 통합 혹은 바른정당에 분열이 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 잔류파와의 통합)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당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과 연정론과 관련,



"낮은 수준의 연정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것은 흡수통합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 1기 내각 조각도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2기 내각 구성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먼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휘말리지 말자고 이야기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한데 대해서는 "법정 투쟁을 포기하고 극소수 태극기부대와 정치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주승용 "교통안전체험센터 호남권 신규 건립 시급"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교통안전체험센터 호남권 신규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감에서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전국에 화성(수도권), 상주(영남) 단 2곳 있는데, 전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상주와 화성 교통안전체험센터의 연간 수용능력은 4만9000명으로 전국 수요 11만1000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8주 이상 인피사고 등 중대교통사운전자, 화물자격취득 교통안전체험교육과정과 버스자격취득 교통안전체험교육과정 참여자 등을 의무 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어 매년 수요는 꾸준하지만 교육시설은 부족하다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받은 사업용자동차 교육생 5만181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 후 12개월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추적 조사해보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4%,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생 수요 11만 1000명 가운데 13.5%인 1만5000명에 달하는 호남권 교육생의 불편해소와 지역균형 차원에서라도 호남권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올 車 안전평가 105개 차종 중 17개만 실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7일 "교통안전공단이 2017년 신규로 출시된 105개 차종 중 17개 차종에 대해서만 제작결함 조사를 하고 자동차 안전 평가도 11개 차종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은 판매되는 자동차의 일부분만 샘플링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평가·조사가 끝난 차량을 매각한 돈으로 2년뒤 평가·조사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데, 정부 지원자금 부족으로 주요 신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수입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GM시동키 등 글로벌 리콜사태에 따라 수입차의 리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입 자동차 안정성 검사에 필요한 장비 39개 중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5개만 구비한 상대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자동차 안전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소나무 재선충 전액 국비로 적기 방제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7일 "정부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은 실패했다. 선제적 대응, 방제예산 전액 국비 부담으로 적기 방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올해에만 12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기승을 부리며 10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산림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은 총 628만6000그루에 달한다. 올해는 벌써 100만그루에 육박하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이 발생했다. 최근 4년간 방제예산으로 3100억을, 올해에만 1218억원을 투입했지만 완전방제는 실패한 셈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5년 재선충 박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에는 피해규모를 33만 그루 수준에서 막고, 2017년에는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패로 드러났다"며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에서 증상을 보이는 나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염목까지 조기 발견해 전량 제거하는 방향으로 방제방향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정부가 70%, 지자체 30%를 부담하는 방제예산을 전액 국비로 바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방제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정 시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2017. 12. 16(토) 오후 2:40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